

킵보드 규제 첫 날...“안전모 안쓰셨네요” 수두룩 적발

헬멧 미착용 2만원·정원 초과 시 4만원 부과 경찰, 여의나루역·홍대입구역에서 단속 활동 헬멧 안 쓰고, 인도로 타다 수십명 제지당해

“오늘부터 안전모 미착용 시 운행 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 (PM)’를 이용하거나 헬멧을 쓰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첫날인 13일, 경찰이 오후 1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인근과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PM 관련 단속 활동을 벌였다.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나루역 도로에 2명, 인도에 3명, 횡단보도에 3명, 한강공원에 2명 등 단속 경찰관을 배치한 후 개정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동킵보드 이용자 등을 단속했다. 다만

이날은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 등을 부과하기보다는 계도활동 위주로 단속이 진행됐다.
이날 낮 2시5분께 여의나루역 인근에선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킵보드를 타던 시민 2명이 단속망에 걸렸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5월 13일부터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고, 안전모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운행 제지 후 법 개정 사항을 알린 후 관련 내용이 설명된 팸플릿을 건넸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된 이씨는 “거의 매일 킵보드를 이용한다”면서 “출퇴

근할 때나 잠깐 이동할 때 사용한다”고 전했다. 이씨는 법 개정에 대해 “언제 탈지 모르는 건데 헬멧이나 안전장비를 챙기고 다니기 어렵다. 불편할 것 같다”면서도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을 듯”이라고 말했다.
홍대입구역 3번과 4번 출구 사이에서 진행된 단속 활동에서도 헬멧 미착용이나 인도에서 킵보드를 이용하다가 운행을 제지 당하는 이들이 많았다. 헬멧을 안 쓰고 킵보드를 타다가 단속된 A씨는 “오늘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는지 자세히 몰랐다”고 말했다. 킵보드 렌트 과정에서 관련 내용 안내는 없었다고 전했다.
근처에서 단속에 걸린 김모(23)씨도 개정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말에 “헬멧만 어떻게 들고 다니느냐”면서 “부피도 있고 해서 그냥 안 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영등포 여의나루역 인근에서는 전동킵보드 4대와 전기 자전거 2대 등 총 6건의 계도활동이 실시됐다.



헬멧 의무 착용 등 전동킵보드 이용조항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강화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이 전동킵보드를 타고 있다.

대부분 인도로 주행하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였다.
홍대입구역에서는 총 78건의 계도활동이 있었다. 전동킵보드는 46건, 자전거는 32건이었다. 이 곳에서도 대부분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인도에서 킵보드 등을 운행하다 제지당한 이들이었다. 경찰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이들이 있으면 이들에게도 일일이 “타지 말라”고 설명했다.
경찰청·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PM 관련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만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제2

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PM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무면허 운전 시에는 과태료 10만원, 인명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도 부과된다.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4만원, 13세 미만인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범칙금·과태료 10만원 등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날 일부 경찰서 주도의 단속 계도활동 이후 대국민 홍보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전단 배포 등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범칙금 부과는 조금 더 시간 여유를 둘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오늘부터 한달 동안은 단속 위반의 경우 계도활동 후에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집단지행하는 홈플러스 여성노동자들
홈플러스 여성노동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디타워 MBK 앞에서 운행사 MBK파트너스의 주요 점포 폐점 매각을 규탄하는 집단지행하고 있다.

송귀근 고흥 군수 자가격리...코로나19 확진자 찾기 전념

고흥군은 지난 10여 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다가 10일부터 발생 추이가 진정되어 가는 분위기인 가운데, 송귀근 고흥군수가 11일 오전부터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13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군 보건소에서는 고흥 46번 확진자의 5월 1일 동선에서 결핵식 피로연장소에 참석한 송귀근 군수와 하객들과 악수하는 장면이 담긴 CCTV 등을 확인하여 지난 1일 접촉한 송귀근 군수를 찾아내어 정부 방침대로 코로나 검사를 하였는데 음성판정이 나왔다.
송 군수는 11일 오전부터 정부 방침대로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건강 또한 양호 하다는 것.
재택근무중인 송 군수는 14일에 추가 검사 후 15일부터 격리 해제 될 것으로 고흥보건소 관계자가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조광재 기자

완도 해상서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선박시위

18개 수산 관련단체 선박 60여척 동원



전남 완도지역 18개 수산 관련 단체들은 13일 완도항 제1부두 인근 해상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선박시위를 벌였다.

전남 완도지역 18개 수산 관련 단체들이 13일 완도해상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선박시위를 벌였다.
수산 관련 단체들은 이날 오전 완도항 1부두에서 신우철 완도군수와 군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대회”를 가진 뒤 해상시위를 벌였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완도군어선연합회 주최로 금일수협, 소안수협, 전남연안선망협회, 완도군낚시어선연합회, 완도무선안전국, 한국해양구조단 완도지역대, 완도형망협회, 완도읍민영회, 전국연안어업협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완도지사, 제일연승협회, 주도어선회, 문어단지연합회, 통발자율공동체, 완도군남장망협회, 완도군미역협회 등이 참석했다.

수산단체들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장래 퍼포먼스와 가두 행진, 선박 60여척을 동원한 해상시위 등을 진행했다.
수산단체 측은 “지난 4월13일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해양생태계 오염으로 어업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수산업, 국민의 생명과 건강 등이 위협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수산물 소비 급감과 어촌관광 기회 등으로 수산업 피해는 향후 20~30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며 “정부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 위해 방사능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일본의 파멸적인 행위로 청정바다를 절대 잃을 순 없다”며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완도군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를 사수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민혁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